

# 광주에 AI 기술 · 투자펀드 조성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 인재양성 업무협약

### 제조혁신 기반 마련 · 집적단지 조성 등 기대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AI를 활용한 제조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시에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AI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고성능 컴퓨팅 기반 AI·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인 중기부와 AI 중심의 도시 구축이라는 광주시의 비전이 맞아떨어져 성사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으로의 AI 확산은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중기부와 광주시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AI가 광주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광주시에 AI 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공장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인재육성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AI 투자펀드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은 AI 활용을 통한 제조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시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한 AI 집적단지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업이나 펀드투자의 유치가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중기부 장관 박영선(왼쪽)과 광주시장 이용섭(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앞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신봉우 기자

## 동구 자산1동, 1인가구 옥상텃밭서 이웃과 소통

광주 동구 자산1동은 4064세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마을복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희)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복지공동체 기본교육 ▲텃밭가꾸기&자조모임 ▲영양교육&기초요리 실습 ▲음식 나눔 ▲돌봄&봉사활동 등으로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옥상 텃밭 가꾸기’ 자조모임은 가족 및 사회와 고립돼 생활하는 4064중·장년 1인 세대에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삶의 활력은 물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서구, 6월 민주항쟁 33주년 기념 사진전 운영

광주 서구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사)광주?전남 6월항쟁과 함께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청사 1층 로비에 6월 민주항쟁 특별 사진전을 운영한다.

광주의 6월항쟁은 5.18 민주화운동 도시의 시민공동체 경험에서 비롯 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직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됐으나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해왔다.

이에 서구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당시 학생 및 시민들의 투쟁 등 그 날의 기억을 되짚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가치를 공유하고 선양할 계획이다.

## 남구, 5개 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광주 남구는 초등학교 5곳 주변에서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올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백운·봉주·제석·학강·진제초등학교 일대에서 12일까지 통학로 18곳을 점검한다.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교통안전지킴이 18명이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 등 통행방해 요소를 점검하고 도로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차량이나 신호등 주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북구, 여성 심야귀가 안전동행단 확대 · 운영

광주 북구는 여성심야귀가 안전 동행단을 확대 ·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빛고을 50+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20여명을 안전 동행단으로 구성,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전 동행단은 2인1조로 편성, 평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활동하며 신청인이 사전 또는 당일 동행 요청하면 동행대원이 마중 나와 집 앞까지 함께한다.

또 범죄 취약지역과 골목길 상시 순찰, 위급상황 시 관할 지구대 신고 · 대처 등 주민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수행한다.

## 광산구, 초·중·고 행복체험 동아리 지원 공모 나서

광주 광산구가 22일까지 ‘초·중·고 행복체험 동아리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 등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 지원대상 분야는 진로탐색과 댄스·음악·독서 등 문화예술, 농구·축구·볼링 등 체육활동이다. 특히,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 온라인 동아리도 신청할 수 있다.

학생 10명 이상이 참가하고, 연 4회 이상 활동할 동아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1학교 1동아리를 원칙으로 10개 동아리를 선정해 각각 200만원 내외의 체험활동비·재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6월항쟁, 5·18정신의 실현이자 승리”

###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해 민주영령 추모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광주향교 앞 6월항쟁 표석비 전다마당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부정과 불의에 맞선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 시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막강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집된 힘이었다”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진리를 피와 땀으로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표석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처럼 6월항쟁은 5·18정신의 실현이자 승리로, 5·18민주화운동이 6월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며 “6월항쟁의 정신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늘 기념식의 주제인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 처럼 나눔과 연대, 포용적 시장 경제를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민정 사회대통합을 바탕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마을공동급식 재개...“영농철 농가부담 줄인다”

### 1500개 마을 대상...최대 218만 원 지원

전남도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 영농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재개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공동급식을 일시 중단했으나 사업재개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영농 상황 등을 감안,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공동급식 대상은 마을회관, 경

로당 등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이다. 급식시설과 조리 인력이 부족한 마을은 반찬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50개 마을이 늘어난 1500개 마을을 지원하고, 연간 25일 이상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최대 218만 원까지 늘려 추진

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점검과 식재료 보관·관리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조리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번기 농사일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난 2014년부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여성진용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부 근무 시간엔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아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세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노사협력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015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